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 연구: 전문대학 창업교육 요구도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김용태(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 목 차 >

I. 서론	3-2. 창업교육 필요성 및 의도
II. 국내·외 전문대학 창업교육 현황 및 시사점	3-3. 창업교육 요구도
2-1. 국내 전문대학 창업교육 현황 분석	3-4. 학생 특성별 창업교육 실태 분석
2-2. 해외 전문대학 창업교육 사례 및 시사점	3-5. 교원의 창업교육 인식조사
2-3. 전문대학 창업교육 개선방안	IV.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
III. 전문대학 창업교육 실태조사	V. 결론 및 논의
3-1. 조사방법 및 표본의 특성	참고문헌
	Abstract

< 요 약 >

최근 국내 대학은 학령인구의 감소 및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하여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전문대학 재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실태조사 및 요구도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전문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36개 대학의 창업교육 정보공시 항목을 분석하였으며, 총 1,939명의 전문대학 재학생과 100명의 전문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업친화적학사제도 및 창업교육전담조직, 창업교과 및 비교과, 학생창업 지원 등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문대학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창업교육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4년제 대학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창업친화적학사제도 등 새로운 규정, 제도 마련 등을 위한 고민과 추진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전문대학과 지역 연계를 통해 지역 생계계의 혁신 주체와 적극적인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부족한 역량 지원 및 보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전문대학간의 연계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공동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추진이 요구되며, 전문대학 학제와 특성을 반영하여 4년제

* 주저자,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ytkim@nsu.ac.kr

• 논문투고일 : 2021-10-15. • 수정일 : 2021-11-12. • 게재확정일 : 2021-11-30.

와는 분리된 별도의 창업교육 증장기 계획과 세부 추진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전문대학 창업교육, 전문대학 창업교육 요구도, 실태조사

I. 서 론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도전적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제1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을 통해 다양한 창업교과 개설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해왔으며, 지난 5년 동안 대학 창업교육의 다양한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 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학이 보유한 각종 창업 관련 네트워크, 인력 및 설비 등이 지역 생태계와 연계되지 못하여 일회성 행사로 머무르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 의 창업 인프라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의 창업지원 및 거점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14; 이원철·최종인, 2017).

최근 국내 대학이 직면한 대외적 환경은 점진적인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점점 대학 입학자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기술 및 신산업 발전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내 대학은 내부적인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등의 내실화 노력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역할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점점 학령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대학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신입생 지원 감소 및 취업을 감소 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김용태, 2020). 무엇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신기술 및 신산업 구조 변화 및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생태계 구성주체 및 전문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적합한 교육 모델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재양성 육성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김주미, 2007; Perry, 1986).

본 연구는 위에서 살펴본 연구 배경을 근거로 학령인구의 감소 및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도래 등의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전문대학 경쟁력 확보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전문대학 학생 및 교원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전문대학의 교육적 특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공헌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 연구 : 전문대학 창업교육 요구도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지역 연계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 전문대학 교수 및 학생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및 정보공시항목 분석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전문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 현황, 정책, 사례 등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전국 전문대학 재학생 1,939명과 교수 100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요구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내에서 지금까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추진된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을 분석하여 특화된 전문대학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등 세분화된 전문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 및 지원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II. 국내·외 전문대학 창업교육 현황 및 시사점

2.1 국내 전문대학 창업교육 현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대학이 발표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창업교육 정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창업지원 전담조직,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교원 창업 및 창업지원, 지역연계 창업교육 현황 등 6개 정보공시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전문대학 창업교육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2.1.1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현황 분석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창업 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창업실습/창업현장실습), 창업특기생, 창업학과/연계전공 설치, 창업학점교류제도 등을 통해 대학 내 창업교육 및 문화 기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창업 휴학제를 운영 중인 전문대는 88개 대학(이용학생 9명), 창업 대체학점인정제 운영은 38개 대학(이용학생 112명)으로 4년제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설치/운영은 유사 비율을 보이나, 활용도가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2017년으로 4년제 대학은 이용도

* 본 연구의 전문대학 창업교육 현황은 2020년 국내 전문대학이 발표한 창업교육 분야 정보공시항목과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 창업교육 실태조사 자료와 더불어 저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21)의 전문대학생 1,939명과 교원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가 증가함에 비해, 전문대의 경우 정체 현상을 보였다.

아울러 창업교육 활성화에 따른 창업학과 및 융복합/연계 전공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4년제 대학과 비교해 볼 때 창업관련 학과(전공) 설치는 부족하며, 융합/연계전공 등은 미흡하였다. 향후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융·복합, 연계전공 등을 활용한 실무기반의 창업 강좌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 창업대체학점인증제 현황



자료출처: 대학 창업동계 실태조사(2018), 창업진흥원

구분	2016			2017			
	운영	미운영	전체	운영	미운영	전체	
창업 실습	대학교	빈도 59	214	273	71	199	270
		비중 21.6	78.4	100.0	26.3	73.7	100.0
	전문대학	빈도 26	123	149	33	115	148
		비중 17.4	82.6	100.0	22.3	77.7	100.0
	전체	빈도 85	337	422	104	314	418
		비중 20.1	79.9	100.0	24.9	75.1	100.0
창업 현장 실습	대학교	빈도 63	210	273	73	197	270
		비중 23.1	76.9	100.0	27.0	73.0	100.0
	전문대학	빈도 30	119	149	31	117	148
		비중 20.1	79.9	100.0	20.9	79.1	100.0
	전체	빈도 93	329	422	104	314	418
		비중 22.0	78.0	100.0	24.9	75.1	100.0
소 계	대학교	빈도 72	201	273	86	184	270
		비중 26.4	73.6	100.0	31.5	68.5	100.0
	전문대학	빈도 33	116	149	38	110	148
		비중 22.1	77.9	100.0	25.7	74.3	100.0
	전체	빈도 105	317	422	124	298	418
		비중 24.9	75.1	100.0	29.7	70.3	100.0

* 소계는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중 하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여부

2.1.2 창업교육 지원 현황 분석

전문대학 정규교과 현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창업 강좌는 실습형(22%)보다 이론 전달 방식의 강의(78%)가 많은 문제를 나타내며, 필수강좌(26.4%)보다는 선택강좌(73.6%)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정보공시 참여대학(총 136개 대학)의 정규(전공/교양) 창업 강좌 현황을 분석해보면, 정규교과 강좌 수가 5,957개이며 학교당 평균은 43.8개 수준, 교양과목의 비율은 43.9%, 전공과목의 비율은 56.1%, 이론형 과목 비율은 73.3%로 높고 실습형 과목 비율은 26.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창업교육 현황(정규교과)

학교 (총 136개)	창업강좌 현황(5,957강좌, 166,302명)							
	교양과목(2,614강좌, 43.9%)				전공과목(3,344강좌, 56.1%)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이론형 과목		실습형 과목	
	강좌 수	이수자 수	강좌 수	이수자 수	강좌 수	이수자 수	강좌 수	이수자 수
합계	2,228	67,524	386	8,098	2,139	59,451	1,204	31,229
학교당 평균	16.4	496.5	2.8	59.5	15.7	437.1	8.9	229.6
비중	85.2%	86.8%	14.8%	13.2%	63.9%	65.6%	36.1%	34.4%

자료출처 : 대학 창업통계 실태조사(2018), 창업진흥원

비정규교과 현황은 창업동아리 및 참여인원(1,221개, 16,301명), 창업경진대회 참여인원(164회, 9,105명), 창업캠프(139회, 5,879명)으로 나타나, 창업동아리는 1,221개로 학교당 9.0개 운영하고, 창업경진대회는 164회로 학교당 1.2회 운영, 창업캠프는 139회로 1.0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별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등의 비교과 활동을 운영하는 대학은 상당히 많은 편이며,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등의 비교과 활동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자 수도 약간씩 순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진대회 및 캠프 운영횟수는 운영대학의 숫자 대비 적은 편으로, 학교별 충분한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창업교육 현황(비정규교과)

비정규교과(창업활동)현황					
창업동아리 현황(학교당 평균)		창업경진대회(학교당 평균)		창업캠프(학교당 평균)	
동아리 수	동아리 참여인원 수	개최횟수	참여인원 수	개최횟수	참여인원 수
1,221개	16,301명	164회	9,105명	139회	5,879명
9.0개	119.9명	1.2회	66.9명	1.0회	43.2명

자료출처 : 대학 창업통계 실태조사(2018), 창업진흥원

2.1.3 창업지원 전담조직 현황 분석

창업전담조직 교직원 현황 287명, 학교당 2.1명이며, 지원예산은 학교당 교비 1,410만원, 사업비 7,493만원 으로 나타났다. 전담교직원 수(17년(529명, 학교당 4.3명), 19년(287명, 학교당 2.1명))은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당 전담조직지원예산 평균(17년(교비 2,058만원, 사업비 6,090만원), 19년(교비 1,410만원, 사업비 7,493만원))으로 교비는 약 30% 감소하였으며, 사업비 비중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창업지원 전담조직 지원 현황

창업교육 전담 조직 현황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현황	
전담 교직원 수	지원예산(원)		창업휴학제 시행여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도 시행여부
	교비	사업비		
287	1,918,114,187	10,191,358,960	Y= 100	Y = 46
2.1	14,103,780	74,936,462	N = 36	N = 90

자료출처 : 대학 창업통계 실태조사(2018), 창업진흥원

2.1.4 학생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학생 창업자 수(223명), 창업기업 수(210개),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51명), 매출액(약 37억원), 자본금(약 3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자 수는(17년(299명, 학교당 4.0명), 19년(223명, 학교당 2.0명))은 약 50% 감소하였고, 창업기업 수(17년(277개, 학교당 3.7개), 19년(210개, 학교당 1.9개))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 고용인원수(17년(158명), 19년(51명))는 감소하였고, 매출액(17년(51억), 자본금(17년(43억)도 17년 대비 약 20% 내외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학생창업의 정량적인 수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학생창업 지원공간 23,390㎡, 지원금액 교비(약 11억), 정부지원(71억)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원공간(17년(18,587㎡, 대학당 30.5㎡), 19년(23,390㎡, 대학당 210㎡)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창업지원금액(17년(교비 약 23.9억, 외부지원 약92.8억), 19년(교비 약 11억, 외부지원 71억))은 교비/외부지원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학생창업 및 지원현황

학교	학생창업현황					
	창업자 수	창업기업 수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원)	창업기업 자본금(원)
		교내	교외			
합계	223	45	165	51	3,711,119,014	3,166,879,000
대학당 평균	2.0	0.4	1.5	0.5	3,3433,504	28,530,441

학교	학생창업 지원현황		
	전용공간(m ²)	지원액 (원)	
		교비	정부지원
합계	23,390	1,127,359,444	7,149,975,288
대학당 평균	210.7	10,156,391	64,414,191

자료출처 : 대학 창업통계 실태조사(2018), 창업진흥원

2.1.5 교원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분석

교원 창업자수(17명), 창업기업 수(교내 14명, 교외 2명), 고용인원 수(10명), 매출액(약 5.1억), 자본금(약 2.6억)으로 나타났고, 교원창업자수는 17년(15명, 대학당 1.4명), 19년(17명, 대학당 0.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교원창업기업 수는 17년(13개, 기업당 1.2개), 19년(16개, 기업당 0.2개)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교원창업기업 고용인원수는 17년(9명, 0.7명)에서 19년(10명, 0.1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으며, 매출액(3.5억 → 5.1억), 자본금(8.8천 → 2.6억)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교원창업 현황

학교	교원 창업 현황					
	창업자 수	창업기업 수		창업기업 고용인원 수	창업기업 매출액(원)	창업기업 자본금(원)
		교내	교외			
합계	17	14	2	10	509,925,221	265,000,000
평균	0.2	0.2	0.024	0.1	5,999,120	3,117,647

자료출처 : 대학 창업통계 실태조사(2018), 창업진흥원

2.1.6 지역연계 창업교육 현황 분석

전문대학의 지역 창업생태계와의 교류 및 협업 등의 활동은 오히려 4년제에 비교해 볼 때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생태계와의 협업하는 기관도 양적으로 부족하며, 협업분야에서도 자금, 공간, 판로 등 전체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지역 연계 창업교육 현황



2.2 해외 전문대학 창업교육 사례 및 시사점

2.2.1 미국 Community Colleges 창업교육 사례

미국의 경우 Community Colleges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1970년대 초 중소기업 전문화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는 1,460개 이상의 Community Colleges가 있었고, 그 가운데 950개에 가까운 Community Colleges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업가정신 과정을 보유하고, 800개 이상의 학교가 비학위 수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였다. 지역 경제발전에 대한 지역적 부담이 커지고,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하나의 선택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Community Colleges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교육은 주로 4년제 대학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환경적 요인이 학생의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Community Colleges 창업

의 목표와 수업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Community Colleges 창업교육 선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Community Colleges에서 제공하는 창업 교육의 몇 가지 중요한 특이점은 첫째, Community Colleges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지역경제발전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Community Colleges는 Community Colleges의 자원과 지역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간의 연결을 제공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경제발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4년제 대학과 달리 Community Colleges는 전통적인 4년제 대학 프로그램과는 대조적으로 일반 학습자들의 기능 훈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학습자와 함께 젊은 학부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많은 Community Colleges의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센터가 협력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Community Colleges의 창업 교육의 커리큘럼과 커리큘럼의 추진 요인은 다르며 종종 4년제 대학에서 접하는 추진 요인들보다 더 다양하다. 미국 Community Colleges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1,400개 이상의 Community Colleges에는 1,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며, 전체 정규 학생의 350만 명 이상(40% 이상), 시간제 학생의 25%가 이러한 학교에 다니고 있다.

2.2.2 호주의 창업교육 Certificate 확장형 사례

호주의 전문대학 과정은 직업 교육 및 훈련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라고 불리며 호주의 전문 학사과정은 이론 수업과 실기 수업을 병행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학업에 중점을 두는 실무 중심의 교육체제로써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AQF)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VET과정 중에 수료과정(Certificates) 및 전문 학사과정(Diploma)은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주 정부 기술대학과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None-Government TAFE 혹은 Private College로 나누어져 있다. 2년제 전문대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TAFE는 호주 전 지역에 약 700여 개의 캠퍼스가 있으며 정규대학(University)으로 진학 및 편입을 할 수 있다.

창업교과 학위종류로 수료증 과정 (Certificate 1~4)이 있으며, 특정한 분야의 취업 또는 상위 과정 진학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몇 주~12개월의 다양한 기간의 과정이 Certificate 1~4까지 단계에 걸쳐 제공되며 대부분의 창업교육은 Certificate IV 코스이다. 준 학사과정 (Diploma)은 학과와 신청자의 수준에 따라 학위 취득까지 1년에서 2년의 정식과정 (전문대학)으로 Certificate를 이수 후, 심화 기술을 위해 공부하는

과정으로 과정 이수 후에는 현지 대학의 2학년 과정으로 편입 또는 기술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고급 준 학사과정 (Advanced Diploma)은 Diploma를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그 외에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Diploma 이상의 고급 과정으로 전자공학, 건축학, 과학, 경영과 같은 분야의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으며 대학교 2, 3학년으로 편입도 가능하다.

창업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New Small Business의 Certificate IV는 정부 지원을 받는 Job Trainer 과정으로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비즈니스 기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작, 확장 또는 개선할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중소기업 아이디어 또는 운영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면서 기업가 정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증서 코스이다. New Small Business의 Certificate IV는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서 법적 및 위험 관리 요구 사항 설정(Establish legal and risk management requirements), 사업계획 개발(Develop a business plan), 중소기업 재정 계획 및 관리(Plan and manage small business finances), 마케팅 및 홍보 전략 개발 및 적용(Develop and apply marketing and promotional strategies), 고객 관계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Build client relationships and business networks), 팀 환경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Promote innovation in a team environment) 등을 배우게 된다. 또한, 기업가정신과 성공을 위한 추진력(Entrepreneurial spirit and drive to succeed), 탐색적 문제해결(Investigative problem solving),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 및 대인 관계 기술(Strong communication and interpersonal skills) 등의 개인 특성을 개발하며 Certificate IV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2.3 네덜란드 전문대학 창업교육 사례

네덜란드 정부는 1950년대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을 지원해왔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책들은 주로 중소기업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1980년대부터는 실업 문제가 중심 이슈가 되어 창업지원 정책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995년 이후부터는 사회 문제보다 경제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추어 기업가정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았으며 기업가정신의 단계별 성장과 전환 시마다 재정 지원이 시작되었다.

네덜란드 정부의 다양한 창업교육의 정책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첫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되 독립성을 보장하며 그 방법으로 하이브리드 재정을 더 촉진하고 있으며, 둘째로 정부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들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바로 알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 정부는 비형식적인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제한된 규정들을 폐기하여 더욱더 융통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네덜란드 정부는 비형식적인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혁신적인 기업가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 결과를 시장 가능성으로 판단하려는 지식의 역설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있으며, 또한,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좀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을 연구개발에 끌어들이고 있다.

네덜란드 전문대학에서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대표적으로 암스테르담 지역에 있는 Amsterdam Center for Entrepreneurship(ACE)이 있다. ACE는 암스테르담 대학교(Universiteit van Amsterdam)와 자유 대학교(Vrije Universiteit Amsterdam) 그리고 암스테르담 전문대학(Hogeschool van Amsterdam)이 협력하여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기업체, 정부 및 기타 다른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다양한 실습 경험과 동시에 강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의 목표는 탁월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리서치와 아웃리치를 경험하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발전시켜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다학제 연계 전공 등을 통해 대학들, 응용 분야들, 기업들, 정부 및 기업가들과 연결해 주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의 형태는 지식의 전수뿐만 아니라 기술들도 증대시켜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나아가 인적 자원에도 초점을 맞추어 성공적인 기업가로 자랄 수 있도록 학문적 연구 분야도 지원하고 있다.

2.2.4 해외 전문대학 창업교육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창업교육 운영 형태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창업교육이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창업교육이 정규과정으로 운영되는 경우 산학협동이나 인턴십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즉, 창업이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의 한 유형으로 School-To-Work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학교 중심의 지식을 현장과 지역사회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현장경험 기회를 증진하는데 창업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진행이 된다는 점이다. 창업교육이 창업보육센터나 창업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서는 워크숍이나 특강 등을 통해 창업교육을 시행하거나 창업자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개별 자문과 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대학생, 기존 사업자, 신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에 맞게 창

업교육 프로그램이 모듈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하기보다는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하는 교수나 참여자의 말에서 창업교육이 매우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호주의 다양하고 유연한, 동시에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은 우리나라 전문대학 창업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해외 전문대학 창업교육 시사점

구분	시사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경험을 통한 실무지향적 교육과정 운영(ex, 산학협동, 인턴십 과정 포함) · 현장과 지역사회로 학교교육이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경험 기회 제공 · 창업보육센터나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교육 시행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유통, 교육 등의 small business 창업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음 · 대학생, 예비/기창업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모듈식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 자격증 취득보다는 실제 기업에 요구되는 실용적인 창업교육 중심
국내와의 차이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전문대의 경우 지역기반의 전문대학 창업교육이 다소 미흡함. ·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등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 학교별 특성화를 통해 계열별 창업교육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를 통해서 판단해 볼 때 효과적인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화를 고려한 전문대학교 창업교육 특성화 작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대학은 학교별로 나름 특성화를 갖추고 있고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학교의 특성화를 창업교육 특성화와 연계하여 계열별로 창업교육과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전문대는 미국 및 국내 4년제 대학교와 달리 학과 위주로 창업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의 경우, 대다수가 1~2개의 단과대학에서 계열별로 창업교육을 오픈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창업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의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전문대의 창업교육 개설 과목명을 살펴보면 창업과 경영, 창업 실무, 창업론 등과 같이, 한 과목에서 창업 전반에 대해 많은 내용을 다루려 하기에 창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얻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의 교과목 내에서 많은 영역을 다루어 깊이가 없으며 이론 위주의 강의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외국 사례의 경우, 창업을 위한 인수합병 및 자금조달, 가족 사업, 창업기회분석, 사업계획 개발, 창업 회계 등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구체적으로 창업에 대한 지식을 교과목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목의 내용도 현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볼 수 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 융·복합기술에 대한 교육과 비즈니스모델 발굴형 교육을 유기적으로 접목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창업 교과목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한 첨단기술의 트렌드정보, 마켓의 트렌드정보, 디자인의 트렌드정보 등을 공유하고 투자 전문가와 선배 창업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이러한 최신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의 공유는 참가자에게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발굴할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 시장 탐색형 융·복합교육은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나가는 선진창업을 가능케 해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래 지향적, 시장 탐색형 융·복합 창업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흐름에 대한 메가트렌드, 마켓의 트렌드와 머지않은 미래의 사회에서 활용될 신기술의 트렌드 등을 공유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영감을 자극하고 후발형,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창업을 가능케 하여 글로벌 시장진출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 이러한 교육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부터 퍼스트 무버, 창조형 경제로 전이해 나가야 할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전략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전문대학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필수과목으로 창업교육의 기본과목들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학생들이 창업하지 않더라도 학교생활과 졸업 이후의 삶에 있어서 항상 자신감과 창의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수적인 과목으로 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 기존의 교양과목과의 마찰 없이 창업교육이 정식 과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3 전문대학 창업교육 개선방안

위에서 살펴본 전문대학 창업교육 시사점 이외에도 전문대학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창업 지원에 대한 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하나의 전문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특색이 있는 몇 개의 학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각 학교의 장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나은 창업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지만 학교 간의 경쟁 구도의 벽을 넘어 실제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 운영해 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전문대학에서는 창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하고 실제적인 창업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개발하여 일반 학생과 창업동아리 학생,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지역주민 등을 위한 여러 형태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창업교육센터는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실제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학교 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창업교육을 위한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사업할 종목과 그에 대한 전문기술/지식 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과 창업동아리에 있어서 사업 아이템은 좋으나 창업 그 자체에 관한 교육은 받지 못하는 학생들 그리고 창업을 하고자 하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나 창업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는 일반 성인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창업교과목들뿐만 아니라 특정 학과나 산업, 지역 내 유망 산업 등에 적합한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창업정책 운용에서 대학, 지자체, 지역협의체 등의 민간주도 창업정책 운용을 통해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색이 있는 창업정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창업생태계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민간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 시스템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정규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비정규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창업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닌 학생 개개인이 기업가정신을 체득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마인드를 변경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창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점인정이나 학위 수여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비정규적인 과정 등에서의 프로그램은 실무 및 사례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체계적인 창업교육이어야 함. 따라서 창업교육에서는 이론 위주의 교과서적인 학습방법은 지양되어야 하고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이 지향하는 창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야 하며 이론과 기술 위주의 창업교육에서 탈피하여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시장’의 융합형 창업교육 및 보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획일적 교육 방법으로부터 다양한 학습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것은 강의식 교육 방법 이외에 토론, 실무체험 등의 교육을 의미하기도 하며 학습자가 필요하면 언제, 어디서나 창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창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의 구축, 콘텐츠의 구성, 그리고 교육 방법의 첨단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Ⅲ. 전문대학 창업교육 실태조사

3.1 조사방법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에서 이뤄지고 있는 창업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창업생태계와 연계할 수 있는 전문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국내 전문대학 학생 1,939명과 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창업교육 실태조사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 표 9 > 표본의 특성

항목		응답 수 (단위: 명)	비중 (단위: %)
성별	남학생	721	37.2
	여학생	1,218	62.8
학년	1학년	862	44.5
	2학년	685	35.3
	3학년	277	14.3
	4학년	103	5.3
응답자 전공	공학계열	633	32.6
	자연과학계열	637	32.9
	인문사회계열	347	17.9
	예체능계열	161	8.3
	의료간호보건계열(기타포함)	161	8.3

3.2 창업교육 필요성 및 의도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70.0%가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여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창업교육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 습득’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 가능’ 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생들이 추구하는 창업교육은 창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및 진로 탐색의 기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창업교육 필요성

항목	응답 수(명)	비중(%)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 습득	760	39.2
창업가 역량과 자질 학습	136	7.0
향후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 가능	455	23.5
지역 내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 경제 발전에 기여	35	1.8
기타	18	0.9

3.3 창업교육 요구도

3.3.1 창업교육 참여 경험 및 형태

창업교육 경험에 경험을 물어본 결과 64.5%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창업교육 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정규 창업강좌'가 27.3%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특강'은 24.7%로 나타나 정규 창업 강좌와 유사한 비중이었다.

〈 표 11 〉 창업교육 참여 경험 및 형태

항목	응답 수(명)	비중(%)	
창업교육 참여경험 여부	예	689	35.5
	아니오	1,250	64.5
창업교육 참여 형태	정규 창업강좌	213	27.3
	창업특강	192	24.7
	창업캠프	93	11.9
	창업경진대회	108	13.9
	창업동아리활동	117	15.0
	기타	56	7.2

3.3.2 창업교육 참여 동기

창업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물어본 결과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 습득'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 등 직업생활에 도

움이 될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한 비중도 26.4%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부분 관련 창업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창업 교육 참여 동기

단위 : 명, %

항목	응답 수	비중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 습득	274	30.8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 등 직업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35	26.4
교수님과 주위 선배 및 친구들의 권유로	140	15.7
별로 특별한 목적은 없음	198	22.2
기타	44	4.9

3.3.3 창업교육 교육내용 및 효과적인 방법

창업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 내용에 대해 물어본 결과 ' 창업 아이디어 발굴 '이 40.9%, ' 시장진입 및 마케팅 전략 '이 25.9%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창업교육 내용이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 전공 분야와 관련된 창업교육 내용이 아니어서 '라고 응답한 비중이 3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창업교육 내용의 수준이 어려워서 '라고 응답한 비중도 27.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의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는 창업교육 제공 시 전공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이 필요한 상황이며,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교육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교육의 가장 효과적 방법을 물어본 결과 '창업가 또는 창업 전문가의 특강'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외부 창업기업 방문 등 현장방문식 교육' 이 23.3%, 모의 창업계획 구상 및 시뮬레이션 등 체험식 교육 '이 21.7%로 응답했다. 이론식 교육이 아닌,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고,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표 13> 창업교육의 효과적인 방법

단위 : 명, %

항목	응답 수	비중
전공/교양 교수님의 강의식 교육	298	15.2
외부 전문가의 강의식 교육	334	17
창업가 또는 창업 전문가의 특강	792	40.4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캠프 등 비교과프로그램	330	16.8

외부 창업기업 방문 등 현장 방문 교육	457	23.3
창업 사례 연구를 통한 교육	241	12.3
모의 창업계획 구상 및 시뮬레이션 등 체험 교육	426	21.7
창업동아리 활동	180	9.2
기타	36	1.8

3.3.4 창업교육 희망 강사 및 운영 형태

창업교육의 담당 희망 강사진을 물어본 결과 ' 창업 관련 외부 전문가가 담당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전공과목 교수와 창업 관련 외부전문가 공동 교육 '이라는 응답도 26.7%로 높게 나타나, 대학 내부 교수 중심의 교육이 아닌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창업교육의 운영 형태를 물어본 결과 ' 각 학과 특성에 맞게 전공과목으로 운영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교양이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운영 '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29.9%로 나타나 정규 교과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표 14> 희망하는 창업교육 운영 형태

단위 : 명, %

항목	응답 수	비중
창업 관련 학과를 설치해서 운영	356	18.2
각 학과 특성에 맞게 전공과목으로 운영	670	34.2
교양이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운영	586	29.9
창업경진대회, 창업특강 등의 비교과 형식 운영	532	27.2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	519	26.5
기타	52	2.7

3.4 전공분야별 학생 창업교육 특성 분석

3.4.1 전공분야별 창업교육 필요성

전공분야별 창업 교육 필요성 인식의 차이점이 있는지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p-value = 0.000)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에 비해 창업교육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계열은 공학, 인문사회, 예체능, 의료간호보건, 기타 계열로 나

타난 반면, 자연과학계열의 경우에는 평균을 매우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5> 전공분야별 창업교육 필요성

단위 : 명, %

항목	예		아니오		전체		p값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공학계열	463	73.1	170	26.9	633	100.0	0.000
자연과학계열	387	60.8	250	39.2	637	100.0	
인문사회계열	260	74.9	87	25.1	347	100.0	
예체능계열	129	80.1	32	19.9	161	100.0	
기타	50	75.8	16	24.2	66	100.0	
의료간호보건계열	68	71.6	27	28.4	95	100.0	
전체	1,357	70.0	582	30.0	1,939	100.0	

3.4.2 전공분야별 창업교육 주요 대상

전공분야별 창업교육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이 있는지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p-value = 0.004)으로 나타났다. ‘향후 실제로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평균에 비해 공학, 자연과학, 예체능 계열이 높게 나타났고, ‘창업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이 평균에 비해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창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공학과 재학생’이 평균에 비해 인문사회, 의료간호보건, 기타 계열이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평균에 비해 공학, 자연과학, 의료간호보건 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학, 자연과학, 의료간호보건 계열의 경우에는 타 계열에 비해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문사회, 예체능 계열의 경우에는 타 계열에 비해 창업 의사에 관계 없는 모든 재학생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6> 전공분야별 창업교육 주요 대상

단위 : 명, %

항목	창업 희망학생		모든 재학생		창업분야 전공재학생		수강 희망학생		기타		p값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공학계열	295	46.6	67	10.6	81	12.8	189	29.9	1	0.2	0.004
자연과학계열	314	49.3	56	8.8	70	11.0	195	30.6	2	0.3	
인문사회계열	143	41.2	56	16.1	53	15.3	94	27.1	1	0.3	
예체능계열	78	48.4	20	12.4	16	9.9	45	28.0	2	1.2	
기타	29	43.9	5	7.6	13	19.7	17	25.8	2	3.0	
의료간호보건계열	44	46.3	7	7.4	13	13.7	31	32.6	0	0.0	
전체	903	46.6	211	10.9	246	12.7	571	29.4	8	0.4	

3.4.3 전공분야별 창업의도 및 창업희망 분야

전공분야별 창업의도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p-value = 0.00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에 비해 창업의도가 높게 나타난 계열은 공학, 예체능 순이며, 전공분야별 창업희망 분야는 아래 <표 14>와 같이 나타났다.

<표 17> 전공분야별 창업교육 희망분야

단위 : 명, %

항목	전공분야 기술창업		비전공 기술창업		비전공 일반요식업		비전공 도소매 등		기타		p값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 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공학계열	395	62.4	111	17.5	76	12.0	38	6.0	13	2.1	0.000
자연과학계열	338	53.1	122	19.2	118	18.5	41	6.4	18	2.8	
인문사회계열	174	50.1	70	20.2	58	16.7	31	8.9	14	4.0	
예체능계열	119	73.9	21	13.0	12	7.5	5	3.1	4	2.5	
기타	43	65.2	7	10.6	7	10.6	1	1.5	8	12.1	
의료간호보건계열	50	52.6	23	24.2	14	14.7	7	7.4	1	1.1	
전체	1,119	57.7	354	18.3	285	14.7	123	6.3	58	3.0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창업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 계열은 공학, 예체능, 기타 계열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술 획득을 통한 비전공 분야의 기술창업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 계열은 자연과학, 인문사회, 의료간호보건 계열로 나타났다. 비전공 분야 일반 요식업분야가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 계열은 자연과학, 인문사회, 의료간호보건 계열로 나타났으며, 비전공 분야 일반 도소매, 유통 분야는 자연과학, 인문사회, 의료간호보건 계열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학, 예체능, 기타 계열의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기술창업에 대한 비중이 타 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과학, 인문사회, 의료

간호보건 계열의 경우에는 비전공 분야의 창업에 대한 비중이 타 계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4.4 전공분야별 창업교육 참여 동기

전공분야별 창업 교육 참여 동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 검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p-value = 0.000)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 습득’ 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 계열은 인문사회, 예체능, 기타 계열로 나타났다,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 등 직업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응답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 계열은 공학, 인문사회, 예체능, 의료간호보건 계열로 나타났다. ‘교수님과 주위 선배 및 친구들의 권유’ 응답은 공학, 인문사회, 의료간호보건 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표 18> 전공분야별 창업교육 참여 동기

단위 : 명, %

항목	창업정보 지식,기술 습득을 위해		취업 등 직업생활 에 도움		교수,선배 친구 권유		특별한 목적 없음		기타		p값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공학계열	78	30.5	73	28.5	42	16.4	50	19.5	13	5.1	0.000
자연과학계열	82	25.5	77	24.0	49	15.3	97	30.2	16	5.0	
인문사회계열	60	38.2	45	28.7	26	16.6	22	14.0	4	2.5	
예체능계열	37	46.3	22	27.5	10	12.5	8	10.0	3	3.8	
기타	12	37.5	5	15.6	4	12.5	8	25.0	3	9.4	
의료간호보건계열	5	11.1	13	28.9	9	20.0	13	28.9	5	11.1	
전체	274	30.8	235	26.4	140	15.7	198	22.2	44	4.9	

3.5 교원의 창업교육 인식조사 분석

3.5.1 창업교육 필요성

창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99.0%가 창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창업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향후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9> 교원의 창업교육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

구분	응답 수	비중
창업준비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16	16.0
창업가로서의 잠재적인 역량과 자질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때문에	9	9.0
학생의 향후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69	69.0
4차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5	5.0
지역 내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1	1.0
기타	-	-

3.5.2 창업교육 주요 대상

창업교육의 주요 대상에 대해 교원들은 ‘본인이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의견과 상이하였으며, 이후 ‘창업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 이 29.0%, ‘향후 실제로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이 27.0%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교원의 창업교육 주요 대상 인식

단위 : 명, %

구분	응답 수	비중
향후 실제로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27	27.0
창업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	29	29.0
창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공학과 재학생	9	9.0
본인이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35	35.0

3.5.3 창업교육 내용의 중요도 인식

창업교육의 주요 대상에 대해 교원들은 ‘본인이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의견과 상이하였으며, 이후 ‘창업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 이 29.0%, ‘향후 실제로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이 27.0%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교원의 창업교육 내용 중요도 인식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도전정신 등 기업가정신 함양	44	44.0	7	7.0	9	9.0
창업 아이디어 발굴	25	25.0	36	36.0	11	11.0
창업지원정보 및 준비사항	19	19.0	22	22.0	18	18.0
팀 빌딩 등 인사관리	-	-	1	1.0	3	3.0
시장진입 및 마케팅 전략	2	2.0	16	16.0	21	21.0
재무 및 회계	2	2.0	4	4.0	12	12.0
판로개척 및 네트워크	1	1.0	5	5.0	5	5.0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 훈련 등	7	7.0	9	9.0	21	21.0

3.5.4 창업교육 강좌 개설의 어려움 원인

창업교육의 주요 대상에 대해 교원들은 ‘본인이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이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들의 의견과 상이하였으며, 이후 ‘창업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재학생’ 이 29.0%, ‘향후 실제로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이 27.0%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교원의 창업교육 내용 중요도 인식

단위 : 명, %

구분	응답수	비중
전공 과목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 미흡	17	17.0
창업강좌 관련 전문 강의 인력의 부족	12	12.0
창업강좌 콘텐츠 부족	12	12.0
교과목 편성에 따른 대학(학과간) 내 갈등	9	9.0
대학 차원의 창업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	9	9.0
학생들의 관심 및 수요 부족	40	40.0

3.5.5 창업교육 인프라 운영 인식

창업인프라에 대한 운영 인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창업교육전담조직이 효과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는 응답이 3.43점(100점 만점 환산 시 6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창업교육전담인력이 충분하다’ 라는 응답은 2.68점(100점 만점 환산 시 53.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창업 인프라에 대한 운영인식이 낮은 것

으로 판단되며, 특히, 전담인력, 교수인력, 제도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23〉 교원의 창업교육 인프라 운영 인식

단위 : 명, %

구분	평균	표준편차
귀 대학은 창업교육전담조직이 효과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43	0.962
귀 대학은 창업교육전담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68	0.926
귀 대학의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73	0.882
귀 대학은 창업교육 관련 제도적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86	0.980
귀 대학의 창업교육전담조직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19	0.956
귀 대학의 창업교육 운영 재정(교비 및 외부 재정지원 등)이 충분합니까?	3.15	0.931

3.5.6 창업교육 운영 애로사항

창업교육 운영 애로사항에서 ‘학생들의 수강을 저조’가 1순위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창업교육을 전담하는 교원 확보의 어려움’도 2순위로 의견이 나타났다.

〈표 24〉 교원의 창업교육 내용 중요도 인식

단위 :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대학 본부의 행·재정적 지원 부족	15	15.0	8	8.0	7	7.0
창업교육 관련 교직원의 이해 및 협조 부족	10	10.0	11	11.0	8	8.0
창업교육을 전담하는 교원 확보의 어려움	10	10.0	22	22.0	7	7.0
학생들의 수강을 저조	29	29.0	9	9.0	12	12.0
창업교육 교재 등 다양한 콘텐츠 부족	9	9.0	16	16.0	18	18.0
세분화, 전문화된 창업교육과정 개발의 어려움	16	16.0	17	17.0	15	15.0
정부/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부족	8	8.0	12	12.0	9	9.0
지역 창업생태계 교류 및 네트워크 부족	2	2.0	4	4.0	23	23.0

IV.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

지금까지 전문대학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요구도 및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외 전문대학 창업교육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전문대학 활성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전문대학 내부적으로 창업교육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창업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4년제 대학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등 새로운 규정, 제도 마련 등을 위한 고민과 추진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아울러 전문대학과 지역 연계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이 위치한 지역 생계계의 혁신 주체와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창업교육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부족한 역량 지원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전문대학간의 연계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공동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학제와 특성을 반영하여 4년제와는 분리된 별도의 창업교육 중장기 계획과 세부 추진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기간에 졸업과 취업 준비라는 특수성을 갖는 전문대 학생 창업가 특성을 고려한 창업준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



V.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전문대학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요구도 및 실태조사 결과와 국내외 전문대학 창업교육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전문대학 창업교육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문대학 창업교육지원이 양적 및 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민간 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된 일반 4년제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이 갈수록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달리 전문대학의 창업교육/지원은 양적인 감소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정체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전문대학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전문대학 창업교육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전문대학의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역 환경에 적합한 특화된 창업교육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 내부의 창업 친화적 학사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태이다. 4년제 대학과는 달리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을 위한 정량적·정성적인 지표 등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전문대학 학생들의 졸업과 취업을 위해 학업부담 등으로 교과 및 비교과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대학 본부 및 구성원의 창업교육 인식이 부족하며, 학생창업을 위한 창업 휴학제, 대체 학점인정제 등 다양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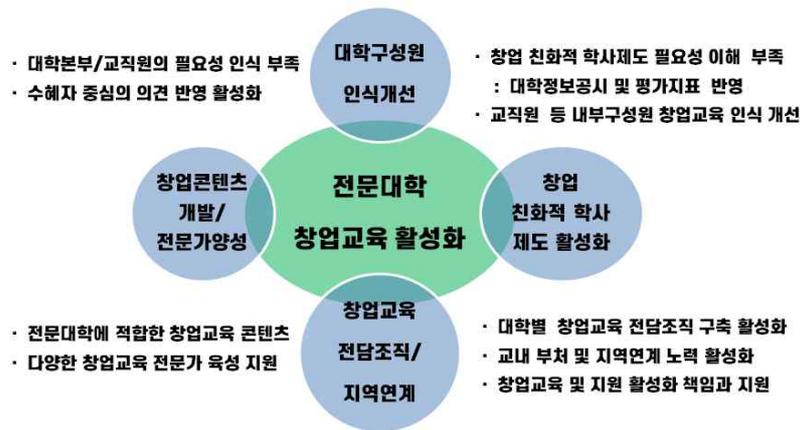
셋째, 전문대학 창업교육 콘텐츠 및 창업교육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다. 전문대학생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무적인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이 미흡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창업교육 전문가도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 창업교육의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창업교육 콘텐츠 부족’ 과 ‘창업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미흡’ 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생 창업자를 위한 창업 준비를 위한 기회 제공이 부족하다. 일반대학 학생창업에 비해 전문대학 학생창업의 경우 양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제 학생창업자들이 창업 준비를 체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일반대학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문대학생이 선정, 참여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전문대 할당제 또는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역연계형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 연구 : 전문대학 창업교육 요구도 및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이를 위해 전문대학 내부적으로 창업교육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창업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며, 4년제 대학과 다른 특성을 반영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등 새로운 규정, 제도 마련 등을 위한 고민과 추진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전문대학과 지역 연계를 통해 지역 생계계의 혁신 주체와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부족한 역량 지원 및 보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지역연계형 전문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아울러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적극적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전문대학간의 연계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며, 공동 창업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추진이 요구되며, 전문대학 학제와 특성을 반영하여 4년제와는 분리된 별도의 창업교육 중장기 계획과 세부 추진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간에 졸업과 취업 준비라는 특수성을 갖는 전문대 학생 창업가 특성을 고려한 창업 준비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안한 전문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과 여러 가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전국 전문대학 재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수도권 등 일부 전문대학에 집중된 점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학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의 경우 전략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부분이므로 보다 세분화된 실행방안이 미흡한 부분은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대학별 특성이 반영된 창업교육 활성화 모델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세분화된 교육 모델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주미(2007),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84-128.
- 김용태(2020), 비대면 온라인 창업교육 만족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4(1), 160-179.
- 김용태(2021), 체험형 창업교육이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스킬, 기업가정신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1), 51-75.
- 이원철·최종인(2017), 지역연계 대학 창업교육 방향연구, **벤처창업연구**, 12(6), 89-98.
- 한국노동연구원(2014), 대학 창업교육 5개년계획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고용영향평가 연구, 309-325.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21), 전문대학 창업교육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대학 창업통계 조사결과보고서(2019),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창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 대학 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2) 국외문헌

- Final Evaluation of The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 : *CSES Final Report*(2011). .
- P Cooke, M. G. Uranga, G. Etxebarria,1998,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 An Evolutionary Perpective, *Research Article*, Setember 1.
- Perry, C(1986),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 training programs“, *Training and Development in Australia*, 13(3), 3-8.
- Amsterdam Center for Entrepreneurship(ACE), <http://ace-incubator.nl/>
- Johnson Country Community Colleg, <http://www.jcce.edu/>

<ABSTRACT>

A study on the model for activation of regional-link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 Focusing on the needs and actual conditions for college start-up education

Yong-tae Kim*

Recently, domestic universities are required not only to strengthen their educational and research capabilities, but also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n preparation for the decrease in the school-age population and changes in youth jobs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model for activa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junior colleges connected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a survey on the statu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an analysis of their needs for domestic college students and teachers who are increasingly experiencing difficulties. We analyzed the information disclosure items for start-up education at 136 universities, and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targeting a total of 1,939 college students and 100 college teachers, the start-up-friendly undergraduate system and organization dedicated to start-up education, start-up subjects and non-departmental departments, and student start-ups It was confirmed that the support, etc., was gradually reduced, and countermeasures were required.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ntinuous start-up education and support system within the junior college,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nd promote new regulations and systems, such as a start-up-friendly undergraduate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those of a four-year university. Above all, it can be said that it is important to support and supplement the insufficient capacity through active connection and cooperation with the innovative agents of the local livelihood through the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promote linkage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junior colleges, to develop contents for joint startup education and to foster

* First Author, Associate Professor of Liberal Arts College at Namseoul University, ytkim@nsu.ac.kr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제5권4호

experts. need to be prepared.

Keywords : Regional-linked start-up education, college start-up education, college start-up education demand, actual situation survey